

수험번호 ( ) 지원모집단위 ( ) 성명 ( )

<유의사항>

- 1. 시험시간은 120분임.
- 2. 반드시 문항별 지정된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할 것.
-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 5. 제목을 쓰지 말 것.
- 6. 답안 작성은 검은색 펜만을 사용할 것.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1>

(가)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王宮)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웅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 집 돼지 같은 주인 년한테 욕을 하고  
 웅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불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越南)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중략]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絶頂)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하략]

- 김수영, 「어느 날 고궁(古宮)을 나오면서」 -

(나)

열두 살은 아직도 아이의 단순함에 지배되기 쉬운 나이지만, 그리고 아직은 생생한 낮의 기억들이 은근히 의식의 굴절과 마비를 강요하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래도 그 새로운 환경과 질서에 그대로 편입될 수는 없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기에는 그때껏 내가 길들어 온 원리 — 어른들 식으로 말하면 합리와 자유 — 에 너무도 그것들이 어긋나기 때문이었다. [중략] 하지만 싸운다는 것도 실은 막막하기 그지없었다.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가 그러했고, 누구와 싸워야 할지가 그러했고, 무엇을 놓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가 그러했다. 뚜렷한 것은 다만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뿐 — 다시 한 번 어른들 식으로 표현한다면, 불합리와 폭력에 기초한 어떤 거대한 불의가 존재한다는 확신뿐 —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대응은 그때의 내게는 아직 무리였다.

-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제시문 2>

Let us do something, while we have the chance! It is not every day that we are needed. Not indeed that we personally are needed. Others would meet the case equally well, if not better. To all mankind they were addressed, those cries for help still ringing in our ears! But at this place, at this moment of time, all mankind is us, whether we like it or not. Let us make the most of it, before it is too late! Let us represent worthily for one the foul brood to which a cruel fate consigned\* us! What do you say? It is true that when with folded arms we weigh the pros and cons we are no less a credit to our species. The tiger bounds to the help of his congeners\* without the least reflection, or else he slinks\* away into the depths of the thickets\*. But that is not the question. What are we doing here, that is the question. And we are blessed in this, that we happen to know the answer.

- \* consign: 위임하다, 할당하다
- \* congener: 동종의 동식물
- \* thicket: 덤불
- \* slink: 살며시 도망치다

- Samuel Beckett, *Waiting for Godot* -

[문제 1] <제시문 1> (가)와 (나)의 공통된 주제 의식과 <제시문 2>의 주제 의식을 각각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문제 2] <제시문 2>에 나타난 문제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들을 분류하고, <제시문 2> 화자가 취하는 주된 대응 방식을 근거로 <제시문 1> (가) 화자의 태도를 비판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I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3>

케플러는 행성이 원이나 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궤도를 따라 돈다는 생각을 버림으로써 둘과 구를 열 수 있었다. 코페르니쿠스는 한결같이 원 궤도를 고집했지만 케플러는 그 점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케플러가 지적한 코페르니쿠스의 잘못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성들은 정확한 원 궤도를 따라 돈다. 둘째, 행성들은 일정한 속도로 돈다. 셋째, 태양은 이들 원 궤도의 중심에 있다.

코페르니쿠스는 위의 세 가정에 지나치게 얽매어 있었기 때문에 화성과 다른 행성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케플러는 종래의 선입견과 가정을 모두 버렸기 때문에 행성들의 운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브라헤의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태양계 모델을 구축했다. [중략]

케플러 이전에는 어째서 행성들의 궤도가 타원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원운동을 신성하고 완벽한 운동이라고 생각했던 탓에 천문학자들이 다른 가능성은 생각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대부분의 행성 궤도가 원에 가까운 타원형이어서 면밀히 조사하지 않으면 원 궤도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케플러의 타원 궤도는 관측의 결과와 잘 일치했으며, 태양계 행성의 운동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의 결론은 과학과 과학적 방법, 즉 관측과 가설 그리고 수학을 결합하여 얻어 낸 승리였다.

- 「EBS 수능완성 국어B형」 -

<제시문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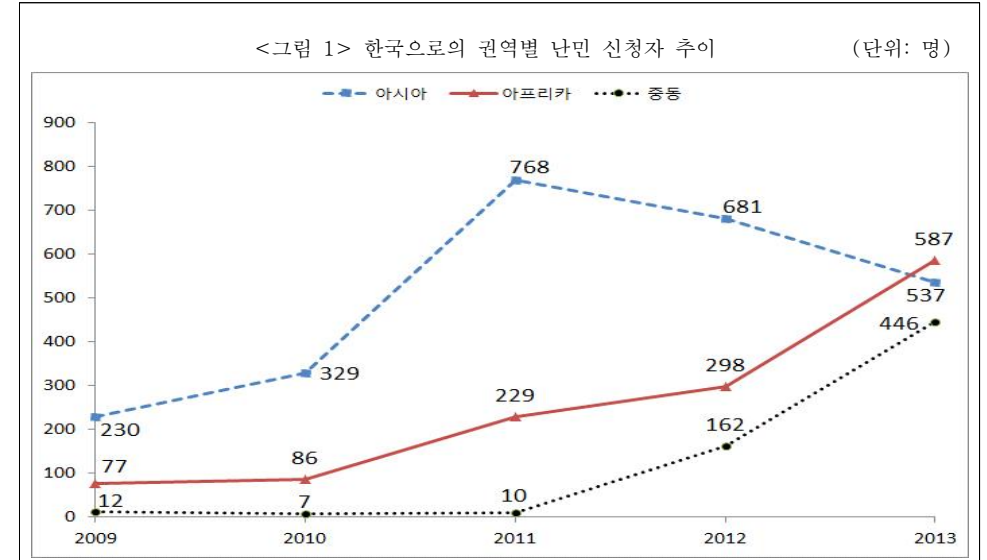
귀납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개별적인 사실들로부터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검증되면 일반적인 법칙으로 정립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법칙을 토대로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다. 즉 귀납의 원리는 어떤 일정한 형식의 연속이나 공존이 이제까지 자주 반복되었다면 같은 조건에서는 언제나 그런 연속이나 공존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귀납이 정말로 믿을 만한 지식 획득의 방법일까?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귀납적 방법의 난점을 간단한 일화를 통해 지적하였다. 닭 주인이 닭에게 매일 오전 9시에 모이를 주자 닭은 오랜 관찰에 근거한 귀납 추론을 통해 ‘주인은 언제나 오전 9시에 모이를 준다.’라는 법칙을 발견한다. 그리고 주인집에 사위가 찾아온 날 오전 9시에 주인이 들어오자 닭은 그 법칙에 근거해서 ‘오늘도 주인은 모이를 준다.’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주인은 모이를 주는 대신 사위를 위해 닭의 목을 비틀어 버린다. [중략]

귀납의 원리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 이전 시대의 철학자 흄의 주장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중략] 흄에 따르면 지금까지 관찰해 온 것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아무런 단서도 제공하지 않는다. 물론 똑같은 방식의 일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다. [중략] 그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사실을 믿을 만한 정당화가 전혀 없다. 흄에 따르면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 정신의 습관일 뿐이다. 곧 과학을 특별하게 만드는 귀납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정당화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우리 인간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심리적인 설명을 내놓을 수 있을 뿐이다.

-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 B형」 -

<자료 1>



출처 : 2009~2013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대한민국 법무부)

<표 1> 한국 정부가 승인한 권역별 난민 인정자 추이 (단위: 명)

연도 \ 권역	2009년	2010	2011	2012	2013
아시아	59	28	28	37	38
아프리카	11	19	25	19	17
중동	4	6	0	6	8
전체 인정자	74	47	42	60	57

출처 : 2009~2013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대한민국 법무부)

**[문제 3]** <제시문 3>과 <제시문 4>를 예측 오류의 발생가능성, 획득한 지식의 신뢰성, 지식획득 방법의 정당성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제시문 4>의 예측에 관한 흄의 주장에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그림 1>에서 찾아 그 이유를 밝히고, 이와 더불어 <그림 1>과 <표 1>을 바탕으로 2009년과 2013년의 권역별 자료를 비교하여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